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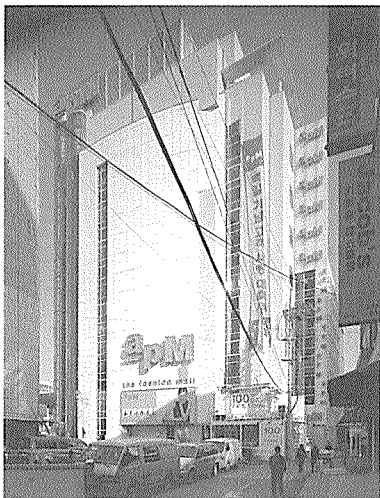
에이 피 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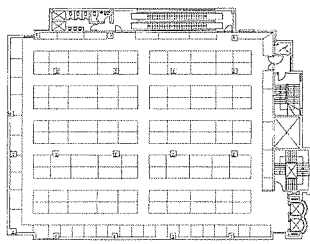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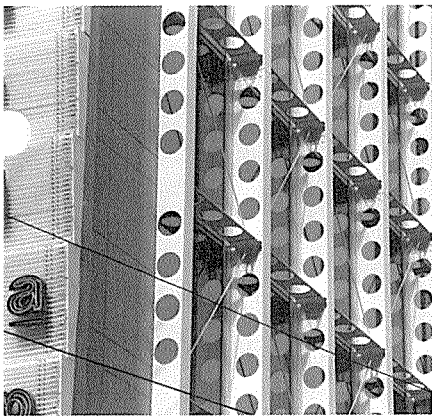
apM

이관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Lee Kwan-J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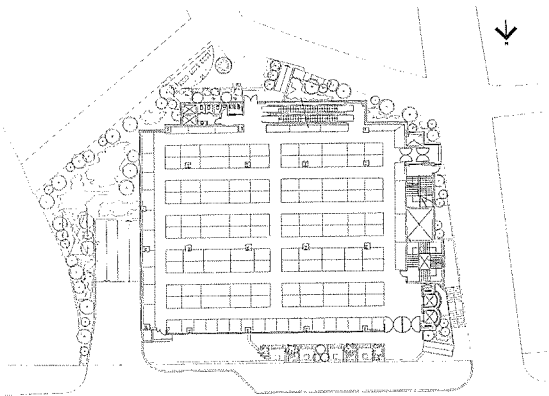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198-13 외26 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1,909.00㎡
건축면적	1,138.13㎡
연면적	14,178.60㎡
건폐율	59.62%
용적률	483.42%
규모	지하 4층, 지상 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4.35m
설비방식	공기조합방식 + 팬코일 방식
용도	판매시설
외부마감	벽 / T24 컬러복층유리, T30화강석, T3 알미늄시트, 지붕 / 우레탄 방수
내부마감	바닥 / 대리석 벽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천정 / 철판위 위생락카
주차대수	자주식 65(장애자용 3대)
조경면적	290.17㎡
설계담당	장진욱, 임태연, 이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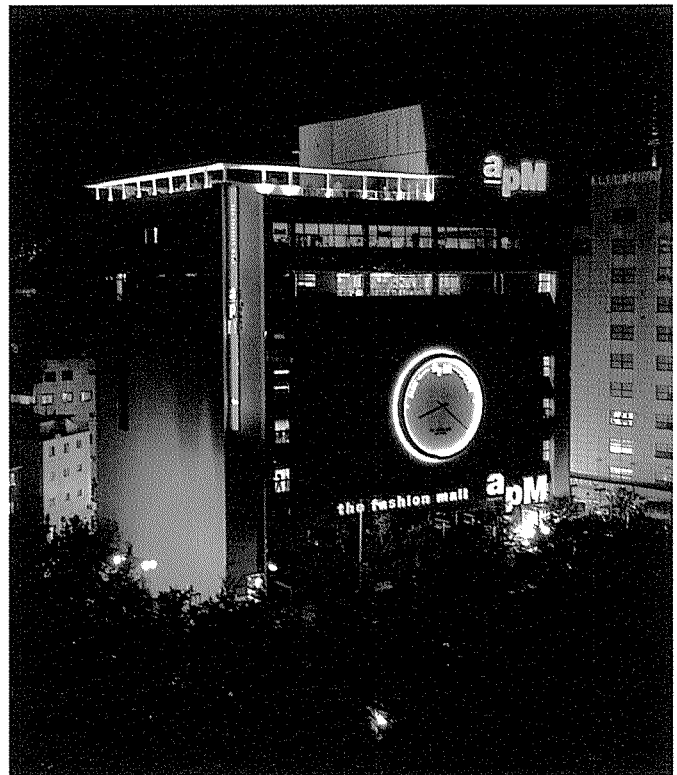




2-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대문이 새로운 의류 상권으로 부각되면서 의류도매상이 건물에 여러 곳에 생겼다. 재래 시장건물에 내외장을 변경하여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와 보다 두드러진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신축건물들이 어울려 건축패션 자유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상업적인 요구로 건폐율과 저층부 매장 갯수 확보의 싸움으로 그리 건축에서의 공공성은 성공한 편은 아니다. 오히려 최대한의 저층부 매장의 확보라는 상업적인 요구에 부흥해서 공공성이라는 건축적 시도가 거의 가능하지 못했다. 최대한의 상업적 면적의 확보라는 건축주의 요구가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상업건물로서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요구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일종의 박스타입의 형태와 엘리베이션 건물(입면 위주의 건물)로 접근되었다.

저층부의 최대 매장의 확보에 관련된 평면은 전면에 4m의 대지안의 공지를 기준선으로 10cm 치수의 여유도 없다. 입체감과 입면재료의 레이어의 겹침과 변화를 위해서 6층 식당층에 발코니를 두어 후퇴시켰다.

유리와 인도사암을 주된 재료로 구성한 복측전면은 비례와 입체감

그리고 천연재료의 색채구성을 노력했다.

후면의 에스컬레이트를 위한 커튼월은 수직멀리언을 외부로 처리하고 제작철골에 원형구멍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가벼운 느낌이 되도록 했다.

전망엘리베이터와 서측벽체의 곡면처리, 옥상에서의 알미늄 장식처마의 설치 등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물에 특성을 주는 요소가 되었으면 한다.

의도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준공을 즈음해서 Apm이라는 건물의 이름이 정해지고 로고, 기업이미지 등 광고와 병행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요란한 네온과 광고판, 커다란 원형시계 등등, 건축적이지는 않지만 상업건물로서의 또 다른 이미지 변신을 재미있게 바라본다.

건물은 건축가의 작품이지만 결국 도시의 구성물이자 배경, 시민의 삶의 장소이다. 우리 모두가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드는 문화의 일부분이다.

설계자로서 Apm 빌딩도 이제 세상에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대상으로, 사용하는 대상으로, 도시와 가로의 배경으로서 계속해서 사랑 받기를 바란다.